

일출 보며 새로운 다짐... 온천욕 하며 한 해 설계

올해는 어디에서 희망을 따올까. 붉은 태양의 용솨음을 가슴에 담으면서, 똑같은 해이런만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돌아보면 회한만 쌓인 지난날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엔 반드시 무언가 달라지겠다는 굳은 다짐 때문이리라.

무자년(戊子年) 첫날, 동쪽 하늘에서 불끈 솟아오르는 해를 응시하는 해맞이는 새 세상을 받아내려는 강신적이다. 가슴을 펴고 저 붉은 해를 들이켜듯 심호흡을 한다. 미신이란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게 믿고 확신하면 그만이다. 눈물이 흐른다면 그 또한 카타르시스다. 기대와 희망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에 일출의 출격은 더욱 각별하다.

새해 신새벽 해맞이 명소를 찾아 한 해 소원을 빌며 계획을 세우거나 조용히 쉬면서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할 '새해설계 명소'를 소개한다.

새해 설계 어디서 할까

▲여수 향일암=여수 반도에서 다시 돌산대교로 이어진 전라남도 남단의 돌산도에는 여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출 풍경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향일암(向日庵)이 있다. 이튿부터가 해를 향해 있다는 뜻이며,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일출 풍광이 장엄하고 신비롭기 까지 해 누구라도 인정하는 곳이다. 범종소리와 함께 맞는 일출의 장관은 워라 형언하기 힘든 감동으로 다가온다.

향일암 대웅전은 높이 150여m의 급경사 절벽을 발 아래에 두고 망망대해인 남해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다. 이곳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 어두운 바다 한 구석에서 문득 붉은 기운이 올라오고, 한 순간 탄성과 함께 온바다가 붉어 물들며 해가 솟아오른다. 모두의 희망과 소망, 기원을 담아 힘차게 솟아 오른다. 향일암 뒤쪽 바위 절벽 사이에도 향일암 부속 사암이 두 동 더 서있다. 그중 향일암에서 백미를 이루는 경관은 원효대사가 수도했다는 관음전 앞에서 보는 바다 풍경이다.

대웅전 옆길, 대낮에도 전등을 밝혀두어야 하는 어두운 바위굴을 지나 이 관음전 앞으로 오르면 대·소황간도, 세존도 등 다도해의 섬들과 돌산도의 짙푸른 숲, 해안절벽에 부딪쳐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흰 물결을 일으키며 나아가는 어선들 등 완벽한 풍경이 펼쳐진다.

▲담양리조트=밤 하늘 별이 가장 잘 보인다고 소문난 노천탕, 온천수에는 게르마늄, 칼슘, 등 좋은 알칼리성 20여가지 성분이 녹아 있다. 특히 스트론튬 성분은 전국 평균치에 비해 3~4배나 높아 신경계통, 생식계통, 심장, 순환계통, 피부질환 등에 효과가 높다.

267평 규모의 대온천탕엔 죽초액탕, 대일탕, 대나무 찜질방, 대나무 사우나, 알라이트 사우나, 욕 사우나, 보석 사우나 등 10여개 기능성 탕이 구석구석 배치돼 있다.

특히 대나무에서 추출한 죽초액을 이용한 탕은 무좀과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어 내장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남녀 온천탕은 1주일씩 교대로 바뀌 음·양의 조화를 꾀한다.

▲신안 중도 옐도라드리조트=우전해수욕장 바로 옆에 개장한 레저 복합단지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유렵풍의 외관에 각각 독립된 건물들은 개인 사생활을 완전히 보장해 조용한 새해 설계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모든 객실은 바다를 향해 반원형으로 언덕에 들어서 있어 서해의 일몰을 감상하며 한 해를 정리하기에 좋다. 특급 온천수준의 전통해수욕장과 노천탕은 한 해를 마무리 하거나 새해를 설계하는 웰빙여행으로 적격이다. 우전해수욕장 우측 F동 밑쪽에 회원전용 해수욕장이 1km밖에 있어 영화속 주인공 공처럼 개인해변을 소유한 기분을 만끽하며 새해를 맞을 수 있다.

▲남해 금산 보리암=남해 금산의 보리암은 최고 기도 도량으로 손꼽히는 영험한 만골이나 일출도 압권이다. 점점이 떠 있는 섬 사이로 붉은 해가 장엄하게 치솟는다. 보리암에서는 금산의 온갖 기이한 암석과 푸른 남해의 경치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미조항도 일출을 보기에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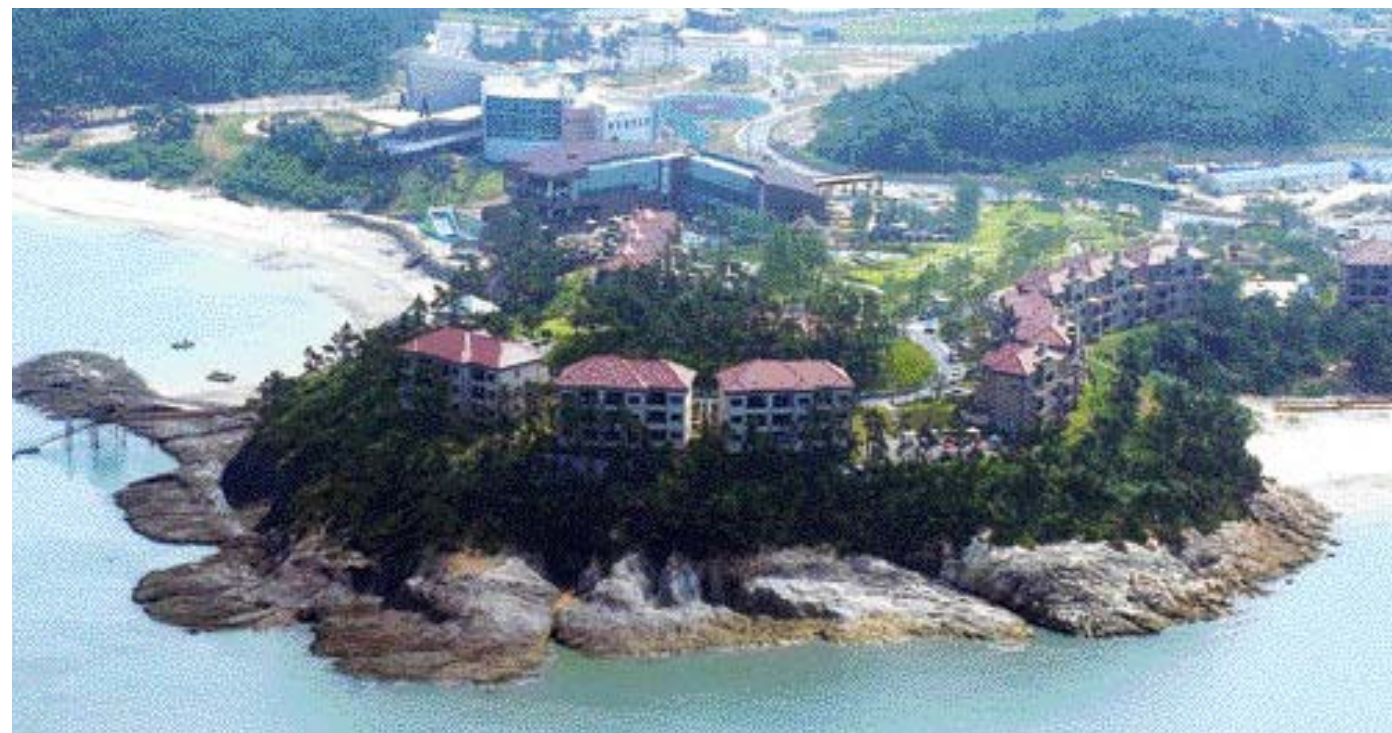
▲강릉 심곡항, 등명낙기사=동해 해돋이를 보러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이 강릉의 정동진이다.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열풍을 타고 급부상한 곳이다. 아담한 역사(驛舍), 장쾌한 파도 등은 분명 이름답지만 기괴한 모양의 모텔과 카페 등 난개발로 안타까움이 풀어난다. 바로 옆 심곡항은 붐비지 않고 아늑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동해 추암=추암의 일출, 촛대바위 위로 떠오르는 붉은 햇덩이는 최고의 절경으로 꼽힌다. 깨끗한 바다와 백사장, 우뚝 솟은 기암괴석, 고색창연한 해암정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에버루 삼척 해금강으로 불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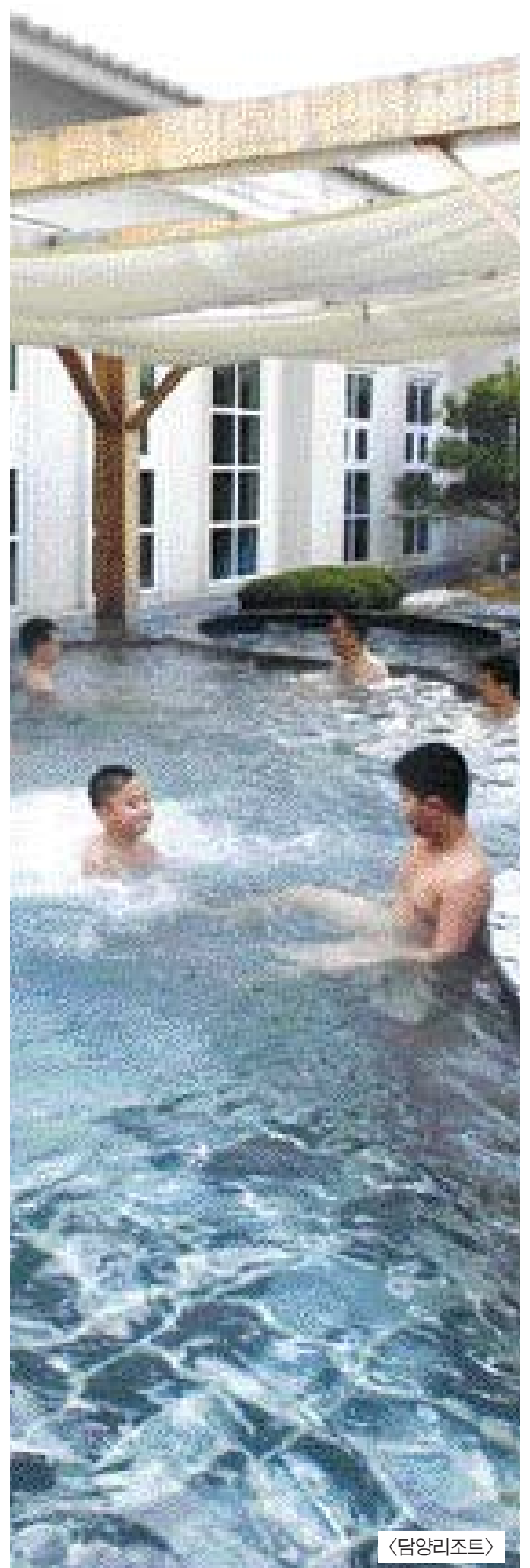
▲태백산 천제단=바다의 일출과 달리 산꼭대기에서의 일출은 다른 맛이다. 그중 태백산에서의 일출은 신성함마저 깃든다. 하늘님을 모시는 천제단에서의 희망을 기원하는 신년 일출은 설악산이나 지리산에서의 일출과도 그 느낌이 다르다. 첩첩 산중과 희뿌연 운무, 그 위로 붉은 빛을 흩뿌리며 치솟는 시벨겐 태양은 감동, 그 자체다.

▲포항 호미곶=호미곶은 호랑이 모양인 한반도의 꼬리 끝자락에 있는 해맞이 명소다. 옛 이름은 잠기곶이다. 새천년을 상징하는 상생의 손도 불거리고 해맞이 광장 옆의 등대도 멋스럽다. 국내에서 가장 높고 인천의 월미도 등대 다음으로 오래됐다. 간절곶은 호미곶보다도 이른 육지에서 가장 빨리 해가 뜨는 곳으로 일출감상 1번지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 경주의 감포 해변도 문무왕 수증릉 너머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이다.

/글=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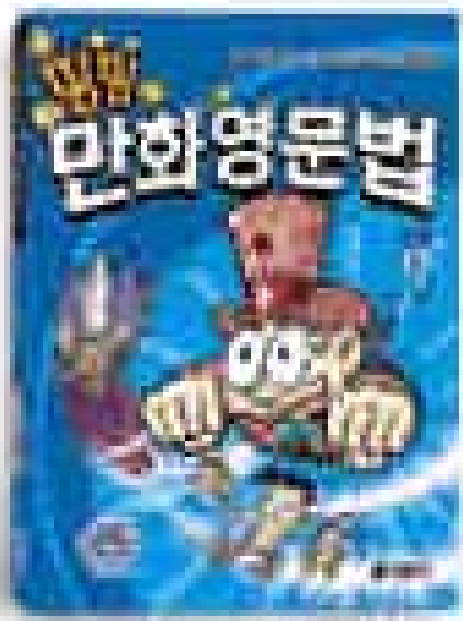
서해 일몰을 감상하며 한해를 정리하기 좋은 신안 중도 옐도라드리조트.



<담양리조트>

지금 만화에 푹~ 빠져있는 철이를 보고도

엄마는 왜 뒤에서 **빙긋** 웃었을까요?



새삼만 꼭 재미있을 만화책도 있습니다. **만화영웅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대중적인 재미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도 있습니다.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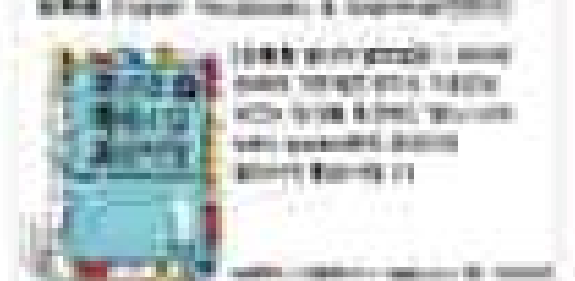
새로운 **인사**만으로도 **재미**가 가득합니다.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물 거대한 **지나**를 만화책 **속** **해**하게 **하**주세요.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아이**에게 **만화영웅도** 선물해주세요!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오년 후 **특별**로 **강** **초**등학생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 **만화영웅도**는 만화계의 **영웅**입니다.